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 미치광이, 하나님 셋 중 하나다(크리스마스의 의미)
마16:13-17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면 싫어한다.

신학(Theology)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님, 천사들, 교회, 구원, 성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상 등, 좁은 의미의 신학 영어로는 Theology proper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를 정의한 것이다.

“신학 혹은 교리는 지도와 같다. 그런데 이 지도는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한 수백 명의 사람들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당신이 조금이라고 안전하게 더 멀리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도를 사용해야 한다. 지도가 없이 바다에 나가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C.S. 루이스

신학이 잘 정립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항상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려면 바른 성경을 바르게 읽고 연구하고 확고한 토대를 세워야 한다. 딤후2:15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로 지키는 날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다.

문제: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동일한 현상, 말 그대로 그리스도 신학의 부재

오늘은 < >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

예수: 마1:1-계22:21, 983회

그리스도: 마1:1-계22:21, 555회

신약성경 260장, 매장 예수 4번, 그리스도 2번, 합해서 장마다 6번 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 신학

고전2:1-2,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한다. 세상 잡동사니 다 버리고

목회 사역, 무슨 사역이든지 기초는 그리스도, 3:10-11

그리스도를 빼고는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16:13-17),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3년쯤 지난 시기), 지금까지 메시아 왕국의 복음, 유대인들의 거부 교회, 십자가 처형에 대해 처음 언급하는 부분

1.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13)
2. 그들의 대답(14)
3. 예수님의 질문(15)
4. 베드로의 대답(16:16)

15절에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들어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과 영원의 세계의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자체가 기독교가 세상의 반감을 사는 이유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독교는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된다.

우리는 그 질문에 바르게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담대한 주장

2,000년 전 유대 땅의 한 남자, 담대한 주장

1.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요1:1, 14).
2.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요5:17).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3.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10:30)
4.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5. 내가 곧 길이요(요14:6).

6,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요14:9)

7. 다른 구원자는 없다(행4:12),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C. S. 루이스의 선택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대답하였다. 사도 바울의 서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현대인들의 말로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장 유명한 변증 혹은 답변은 C. S. 루이스의 것, '순전한 기독교'

그는 그것을 "삼도(三刀) 논법" 3자 택일의 궁지라고 불렀다(trilemma).

1. 첫째 선택지, 그는 거짓말쟁이다(Liar). 사기꾼이다. 습관적으로 거짓말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의 논리적인 선택지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고의로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는 알면서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도록, 또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자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도록 말이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자기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어떤 계약이나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게 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십 억의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사기를 친 희대의 사기꾼이다. 우리도 거기의 희생자이다.

2. 둘째 선택지: 그는 미치광이이다.

미치광이(Lunatic):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진심으로 확고하게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치광이는 보통은 과대망상 환자: 사실보다 과장하여 터무니없는 헛된 생각을 하는 증상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주장: 나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 한둘인가?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박태선, 스스로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이단의 괴수들, 다 미치광이, 과대망상증 환자들

본인은 진심으로 이것을 믿지만 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사람은 미치광이이다.

오늘 TV, 유튜브 등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나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나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물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증보자다!"라고 외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미치광이"

3. 셋째 선택지: 가장 어이없으면서도 놀라운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짜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16절 베드로의 고백). 아들 하나님이다. 여자의 씨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1. 그는 뻔뻔한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

2. 그는 미치광이, 그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

3. 그는 하나님, 이 경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

"아뇨, 저한테는 수많은 다른 선택지들이 있는데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의 탐구 결과, 그렇지 않다. 다른 논리적 선택지는 없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미치광이, 또는 주 그리스도

1.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는 이유

거짓말쟁이들은 자기들의 계략이 들통 나면 보통 다 포기하고 자백한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거짓말 이면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 돈, 명예, 권력 등 따라서 누군가가 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예수님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의 계략이 뒤틀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어라고 말할까? "잠깐만요. 전부 철회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보라, 꼬봉들,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니 "이재명이 시켰습니다."라고 자백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곳곳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심, 자신의 주장을 단 하나도 철회하지 않음,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아니다. 될 수가 없다.

2. 미치광이(과대망상증 전신병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들의 발견: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마태복음 5,6,7장에 걸쳐 간단히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상수훈과 비교될 수 없다.

예수님처럼 가장 심오하고 복잡한 것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분이 있는가?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심(마7:28-29)

그들이 다 놀라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나?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도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더라(막1:27).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은 그 시대의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으며 오늘날까지도 반박될 수 없다.

어떻게 미치광이가 그렇게 논리 정연한 말씀을 하는가?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 앞에서 100전 100패, 그분은 절대로 미치광이 정신병자가 아니다.

3. 사람들의 잘못

13절,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14절: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매(마16:14)

이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추측 같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끔찍하게 나쁜 추측이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미치광이 또는 거짓말쟁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 대답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은 그분을 평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분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만드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를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나는 그저 대언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 된 하나님이다. 나는 육신을 입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나를 믿는 사람들의 몸을 성전 삼아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

4.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부를 때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the(유일한)" 구원자라고 부르는 대신에 부정관사 a를 붙여서 여러 구원자 중 하나의 구원자로 바꾸면 된다.

그는 여러 구원자들 중 한 명이다. 여러 성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는 대중 매체와 학계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사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렇게 4대 성인으로 믿고 있다.

아무런 반감이 없다. 종교다원주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主)요, 대언자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기독교가 세상의 반감을 사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반감을 사는 이유는 그분이 "the(유일한)" 구원자, "the(유일한)"주, "the(다른 대언자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대언자시며 그 사실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의 반감을 사는 이유이다.

이것이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신자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이다.

16절: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수용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 실제로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다.

5. 예수님의 담대한 주장

그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요14:6)

The way, the truth, the life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며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요1:12),

결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밖에 없다.

1. 그는 뻔뻔한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

2. 그는 미치광이, 그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

3. 그는 하나님, 이 경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여자의 씨,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들 하나님이신가?

임마누엘이신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계시, 성경(마16:17)

이 유일하신 구원자를 신뢰하여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주의 만찬

지금부터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를 맡으신 형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 침례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두 가지 규례 중 하나입니다.

1. 유월절에 제정된 주의 만찬은,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과 누룩이 없는 포도 주스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악과 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쓰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빵과 포도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주의 만찬은 구원받으신 분이시면 침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성경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한 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고전11:27~28)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부서지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어수석, 000) 형제님께서 기도해주시겠습니까.

===== 기 도 =====

빵 배급이 끝나면 성경구절을 읽고 다 같이 한 빵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이 나누어지는 동안 찬송 214장 (주 예수 해변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 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고전11:23~24)

우리를 위해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한 빵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배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오광일, 000) 형제님께서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까.

===== 기 도 =====

잔 배급이 끝나면 말씀을 읽고 다 같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139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다른 보혈 찬송가도 괜찮음, 146 정결하게 하는 샘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고전11:25~26)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들로 인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 상관없이, 100%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휴거의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의 만찬을 마치겠습니다.
포도즙을 담았던 잔은 통로 쪽 자리로 모아 주셔서
형제님들이 지나가실 때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유일하게 "오는 것이 예고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예기된'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 누구도 줄리어스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워싱턴이나 링컨과 같은 사람이 그들이 실제로 나타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기를 고대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의 삶의 방향이 예언되거나 그가 해야 할 일이 설계된 적이 없다.

그러나 메시아의 강림은 수백 년 동안 예언되어 왔다.

창3:15

시16

시22

사53

미5:

글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현이며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허구 인물이라면 작가가 주인공보다 더 위대할 것이다.

예수라는 인물을 만들어 내려면 예수보다 더 뛰어난 자여야 할 것이다"

폴 워셔

<https://rfcdrfcd.tistory.com/15977728>